

서른세번째 이야기

말씀을 행하라 그리고 준비하라!

2019 Blessing BEE KOREA + 사역자/훈련사역자 임명

12월 9일 BEE KOREA의 특별한 저녁이 있었다. 6시가 조금 넘자 BBK 행사장인 두란노홀의 분위기는 하나둘씩 웃음 가득한 얼굴로, 두 손을 마주 잡고, 포옹을 하며 인사를 나누는 사람들로 인해 들뜨기 시작했다. 한 해 동안 각자의 사명을 따라 열심히 달려온 BEE 식구들의 감사와 축복의 잔치는 이해정 목사님의 식사기도로 시작되었다.

○ 1부 : 식사 및 교제

BEE 이사님들의 한 손갈이라도 더 주고 싶어 하시 는 넉넉한 배식 섬김으로 여느 때보다 식사줄은 더 디게 줄어드는 것 같았지만 이사님들의 사랑이 가득 담긴 수북한 접시는 '다이어트는 내일부터'라는 명언을 떠올리게 하고, 긴 줄의 끝에 있는 사람은 아무래도 음식이 부족할 것만 같은 염려도 갖게 했다. 음식이 하도 맛있어서 너무 양이 많은 것 같다며 소식을 주장하던 사람들도 싹싹 비우고 '한 그릇 더'를 외쳤으나 그러지 못하자 후식조차 쟁탈전이 벌어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 2부 : 예배

▷찬양 : 시작 전부터 찬양 리허설로 두란노홀을 열기 가득하게 한 찬양팀은 울동을 선보이며 모두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도록 인도하였다.



▷설교 : BEE World 총재이신 Dave 목사님은 조문상 총장님의 통역으로 '마리아의 순종'이라는 설교를 하셨다. 고난과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서도 마리아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다. 현실에서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사명에 순종하는 삶은 매우 어려운 것이지만 마리아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 분을 신뢰함을 지니고 그 분과의 관계로 인해 사명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고 힘있게 말씀을 선포하셨다.



▷사역자 임명 : 오랜 훈련과정을 거쳐 BEE의 사역자가 되신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필선	이명신	김승규	이규인
이승혜	이용구	이해리	유재화
홍병현	최 선	박차홍	

▷훈련 사역자 임명



김동균	김성주	김양은	김은숙
김종량	김혁수	이희원	양희주
주선화	박용철	박혜숙	조재관
조부희	차영숙	홍호희	박태준

▷은퇴식 : 은퇴식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막강동인이시지만 호적 상 은퇴를 하시는 고종영, 조경진 선교사님, 김형희 목사님, 정진희 권사님, 네 분의 은퇴식이 있었다. 네 분이 사명을 위해 헌신한 젊음, 열정, 눈물과 땀, 그리고 맺어진 귀한 열매들을 영상 속에서 볼 수 있었다. 많은 BEE 식구들이 그 동안 네 분이 보여주신 열정과 헌신과 노고에 감사드리며 네 분의 사역의 본을 따라 살 겠노라 다짐하며 눈물을 흘리는 시간이었다. 앞으로도 여전히 건강한 모습으로 사역현장에서 뵙기를 기대해본다.



▷선교사 영상 : 가족들과 혹은 현지 사역자들, 학생들과 함께 선교사님들께서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셨다. 한국에서 선교사님들께도 사랑과 축복을 보낸다. Merry christmas & Happy new year!!!



이어 헌금 작성과 축도, 합심 기도까지 마친 후, 따뜻한 겨울 보내시라고 준비한 선물을 받아들이고 돌아가는 BEE 가족들의 모습은 감사와 소망으로 여느 때보다 반짝였다.

소망으로 가득한 2020년을 기대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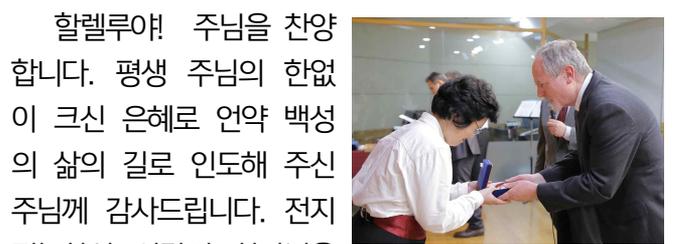
Yes! I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믿음의 복음 행진을 하며

[사역자 이규인 권사]

▷특순 : Amazing LUCE!!! BEE의 자랑이자 해마다 공연의 퀄리티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 가는 루체의 특순이 있었다. 의상과 공연의 구성은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을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이다! 루체 공연은 'What a wonderful world'를 시작으로 소망의 소리 난타로 마무리 되었는데 난타의 북소리가 BEE 가족들의 심장을 똥똥 울리며 열정을 깨우는 시간이었으리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평생 주님의 한없이 크신 은혜로 언약 백성의 삶의 길로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전지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도하며 기다리며, 빛의 갑옷을 입고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2020 BEE VISION : '준비하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2020년

1. 공동체 : 사역의 현지화, 차세대 리더십, 행정의 시스템화
2. 개인 : 하나님과의 만날 날을 준비

미래에 우리를 위해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공동체로 준비되어지길...

올 하반기에 해외 사역을 다녀올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WLICC 과정으로 십자가를 지고 함께 가는 서로의 모습들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전반부 내용을 중심으로 계획하고 진행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병환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중풍환자를 걷게 하시며,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

는 등의 내용입니다. 진행 방법은 그룹별, 주제별로 Skit를 만들고, 각자 Role play를 통해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을 느끼고, 각자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발표를 하면서 "그동안 나는 최선을 다해서 잘 살아왔어"라는 고백이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어"라는 고백으로 바뀌었습니다. 모두 함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의 감동의 찬양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Prepare! 심판대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복음 행진에 함께 할 수 있음에 무한 감사합니다!

오직 말씀으로

[훈련 사역자 이희원 목사]

8~9년 저의 선교비전을 아는 선배 목사님의 권유로 BEE 소개받았지만 그냥 흘러들었는데 2년 전 기도하는 가운데 BEE가 생각났습니다. 갈라디아서



첫 시간부터 감격과 감동이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했고 성경을 더 깊이 묵상하고 연구해야 하는 것이 부담스러웠지만 말씀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기쁨이었습니다. 1년이 지나 올해 순종하는 마음으로 FTS 과정을 마치고 FA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로마서 섬기며, 훈련사역자로 임명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선교를 소망하며 언제 나갈지 모르지만 선교를 계획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선교단체에게 계속 찾던 중에 몇몇 선교단체를 연락도 해보고 찾아가 보기도 하고 지인들이 추천해 주신 곳도 있었지만 선교사의 역할이 사역 중심보다 사람을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에 선교단체를 선택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말씀 가운데 서가는 BEE 선교사역에 감동되어 훈련 가운데 서게 되었습니다. 말씀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기에 부족하나마 배우며 겸손과 성실로 섬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취재: 이경주, 정리: 김옥숙, 편집: 최선- 'BEE수'기자]

BEE의 보석 찾기

33. 김동균 집사

* 이번 주 보석 찾기 주인공입니다.



결혼 전부터 BEE를 해오던 아내(최선 집사)와 함께 결혼 후 같이 참여한 '그리스도인의 결혼' 세미나를 통해 BEE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세미나에서 배운 결혼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과 실제적인 삶의 적용과 나눔은 결혼 초기인 우리 부부가 서로를 더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바쁜 생활 가운데 과제와 강의를 부담이 되었지만 아내와 함께 하는 BEE 세미나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FTS를 마치고 FA로 섬기는 동안 세미나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앞으로도 BEE를 통해 배움으로 성장하고, 가르치는 일에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부천 온누리 교회 사랑 공동체에서 순장으로 섬기고 있으며, 파주에서 전교생 60명의 조그만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BEE 소식

1. 2019년 12월! '말씀을 행하라 - 절제: 보다 높은 목적과 이상에 마음을 두고 자신의 욕망과 정결을 억제함, 거룩: 분리됨. 신자에게 있어 거룩이란 죄로부터 분리되어 하나님께 속함을 뜻함. 본래의 개념은 도덕적 순결한 모습으로 오는 해를 준비하는 BEE가족을 축복합니다!
2. 2020년 1월 10일(금)-13일(월) 베트남 아웃리치(마감), 2020년 5월 8일(금)-16(토) 이스라엘/요르단 성지순례! 2020년 '준비하라'의 비전을 따라 아웃리치로, 성지순례를 지금부터 준비하며 나아갑니다!